

## 신뢰 속에 함께 하는 창조적 선진기업을 지향

천안 공장 설립, 올해 매출 70억원 이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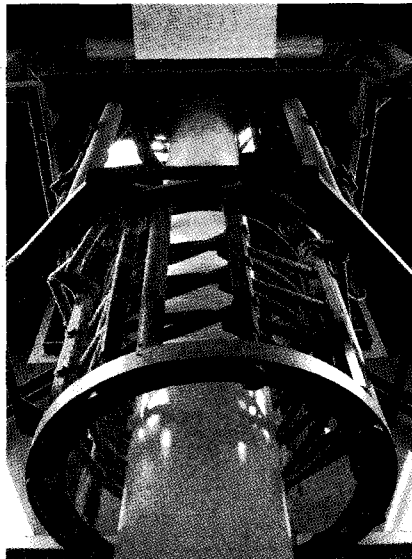


최 춘 식  
화영기업(주) 대표이사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내 포장산업도 지난 1970~80년대에 비해 크게 성장했고, 감성시대라 일컬어지는 요즘 상품구매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디자인과 포장이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업체 종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나아졌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포장업체와 유저(user) 사이에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체 종사자들은 국제 유가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포장원재료는 유가상승에 따라 비싸게 구매하면서 결국 판



◀ 화영기업(주)이 보유하고 있는 원단기



▲ 화영기업(주)의 천안공장 전경

매할 때는 “포장은 부재료”라는 인식 때문에 매출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말하기도 한다. 또한 그라비아 업종은 인간관계로 맺어진 수요체, 즉 모(母)기업이 없이는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는 국내 그라비아 업종이 영세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母)기업이 없는 국내시장의 현실 속에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인식을 깨고, 고객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올 2003년을 제2의 도약기 원년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화영기업(주)(대표이사 최춘식)을 찾았다.

1967년 서통에 입사하면서 포장과 인연을 맺게된 최춘식 사장은 20여년간 포장업계에 종사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987년 1월 화영기업을 창립하게 된다.

1992년 남양주 공장에 PP수축필름 인쇄·제조시설을 가동, 본격적인 포장산업에 뛰어들게 된 화영기업은 이듬해인 1993년 화영기업(주)으로 법인 전환, 올 2003년 5월로 법인전환 10주년을 맞게 됐다.

지난 1994년, 1996년에 제조시설이 추가 설치 됐으며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장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통해 꾸준하게 업계에 일익

을 담당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요구르트·컵라면 등의 “변들용 PP수축필름 인쇄”를 토대로 남양주 공장은 1993년부터 매년 2자리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화영기업의 변들용 PP수축필름 생산 자동화 기술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로부터 포장비의 절감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기술혁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양주 공장 생산 캠퍼스의 한계와 새로운 시설투자의 필요성을 자각한 화영기업(주)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남양주 공장이 아닌 ‘제2의 사업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 HwaYoung



▲ 화영기업(주)의 생산제품

깨닫고 지난 2002년 5월, (舊)유진케미칼(주) 천안공장 인수에 착수, 9월부터 화영기업(주)천안공장으로 새롭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매출 총액은 40억으로 전년대비 20% 매출증가를 이룩하게 되었다.

화영기업(주)는 남양주 공장의 '변들용 PP수축필름 인쇄'에서 천안공장 인수를 통해 필름생산부터 인쇄 가공까

지 사업을 다각화,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되면서 천안공장과 남양주공장, 서울사무소(control tower)의 분권화된 전문적 기업체계의 시스템을 구축, 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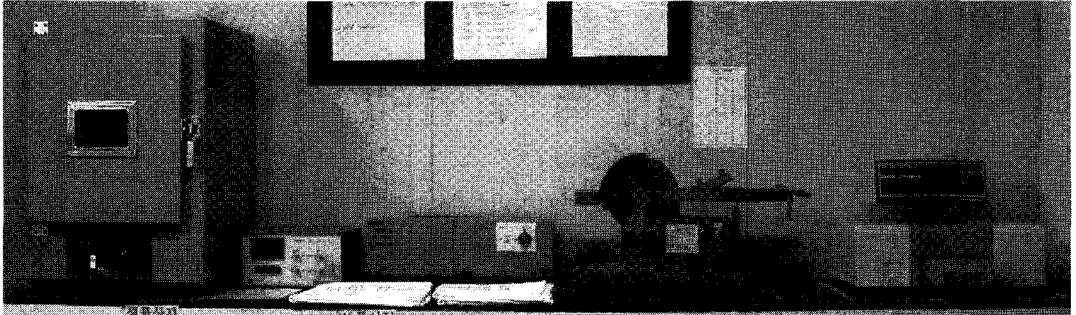
천안공장은 현재 그라비아 인쇄와 플라스틱 필름을 주 생산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식품, 음료, 일반 품목의 연포장 인쇄, 가공(OPP, PET, NYLON 필름 등 인쇄

및 PP, AL Foil, PE 합지가공) 뿐만 아니라 기저귀, 생리대 및 일반품목용 외포장지로 사용되는 LD/LLDPE POLYBAG 인쇄 및 가공, 튜브(tube)형과 평판형으로 생산되는 LD/LLDPE FILM, 기저귀의 백쉬트용으로 사용되는 비통기성 CAST FILM 까지 생산하고 있다.

최춘식 사장은 "연포장 업계의 오랜경험과 P&G, Unicharm과 같은 다국적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협력업체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진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 경제 시대 속에서 국내 영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껴, 금번 해외영업부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영기업(주)는 인적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를 완벽 보강, 무역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 화영기업(주)의 검사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생산기지를 현지화하고 물류의 아웃소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 93년부터 수축필름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쪽에 공급해 온 화영기업(주)는 현재 천안공장의 신제품을 호주와 유럽쪽에 보내고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영기업(주)는 “신뢰속에 함께 하는 창조적 선진기업을 지향”이라는 기업 모토 아래 영업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QA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화영맨들이 고객의 기획, 디자인 단계부터 납품 후 생산라인의 원활한 공정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최춘식 사장은 “기업의 윤리성은 최상의 완벽함을 지향하는데 있다”며 “거래처에 믿음과 신뢰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 경영과 변혁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온 화영기업(주)는 임직원간의 신뢰와 성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업 경영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특히 최춘식 시장은 ‘격주 토요일 휴무제’의 개념이 부족했던 지난 95년, 격주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 효율 우선주의 경영을 시작했으며 98년부터는 근로자의 연월차를 이용한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하여 근로자 복지를 고려하고 생산효율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얻었다.

올 2003년 화영기업(주)는 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100억 매출을 초과 달성하는 기업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최춘식 사장은 마지막으로 “견적 산출표를 제대로 지키고 덤핑 자제를 통해 연포장업체가 함께 성장해야 하며, 자사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으로 업계에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화영기업(주). 올 2003년 ‘제2의 도약기’를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화영기업(주)의 향후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